

시간센터 12월 월례토론 발언문

양은영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대구경북본부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휴업으로 정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장영업과 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했고, 여론과 힘을 합쳐 마트노조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대구시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의 제안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무휴업일변경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2022년 12월 19일 대구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고 당사자 간의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2023년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현재 주말 근무 횟수(토요일, 일요일) 및 근무 시간

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일'이라는 개념으로 일주일 두 번 휴식을 취하는데, 그 정일이 4주 간격으로 바뀝니다.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토, 일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토요일 쉬려면 5달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금토 쉬고 토일을 정일로 넣어야 하는데, 토일을 정일로 주지 않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일요일에 쉬려 해도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캐시는 더더욱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6달 만에 4번 일요일 쉬는 거라 그 한 달은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4번 일요일에는 동료들이 바뀌 달라고 하면 안 바꿔 줄 수 없는 분위기 인지라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일요일도 4번 다 쉬지도 못합니다. 연차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연차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3명만 연차를 쓰는 암묵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3명이 일요일 연차 쓰겠다고 표시해 놓은 곳에 4번째로 연차 쓰겠다고 한 사람은 비난 아닌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한 명 더 연차를 쓰면 남아 있는

동료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니 동료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청주점은 월화 화수 수목 목금이 정일이고 토일은 캐셔 별로 월 2회 제한해서 연차 사용을 합의해서 쓴다고 합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의무휴업 변경 전과 비교하면 주말 근무 횟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이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설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가정의 대소사를 할 수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후로는 각 부서 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스케줄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서 3~4개월에 한 번, 캐셔는 인원이 많아 6개월에 한 번 일요일 휴무일이 돌아옵니다. 꼭 필요할 경우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서 쉬어야 합니다. 연차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해서 몇 달 전에 표시해 놓은 연차가 아니면 일요일 휴무인 동료한테 부탁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바꿔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때도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도 스트레스예요.

홈플러스 직원은 월요일로 바뀐 3월부터 12월 지금까지 3~4회 정도 일요일 쉬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3~4번 쉬는 것도 정일로 쉬는 게 아니고 집안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신청해서 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도 파트너들끼리 주말 쉬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고 누가 많이 쉬었는지 계속 따져보고 공정하게 쉬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동료들 간 불만이 쌓여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비교적 제가 쉬고 싶은 날 쉬는 편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이죠.

- 의무휴업의 평일 변경 후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월요일로 의무휴업이 바뀌면서 객(손님) 수가 많은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4번의 근무를 지나고 나니 ‘아 좀 힘드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몇 번의 휴식은 있었지만, 피로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는 느낌입니다.

할머니가 다른 지역에 혼자 계시는데, 일요일 의무휴업 때는 찾아 뵈 수 있었지만 월요일로 바뀌고 나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시지 않는 일요일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지만 찾아뵈 수가 없다고, 일요일로 의무휴업이 다시 되던지 일요일 의무휴업일인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족들도 늦게 일어나니 나도 같이 늦잠을 자고 피로를 풀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남편 회사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야 하니, 6시면 일어나서 가정주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잠들려면 다른 집의 현관 문 열리는 소리, 뒷집 발자국 소리, 대문 열리는 소리 등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주말에 집안 행사나 다른 일, 혹은 몸이 좋지 않아 쉬게 되면 일요일 휴무인 동료에게 휴일 변경을 부탁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도 많고요. 일요일이 의무휴업일 때는 동료들도 잘 바뀌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타지에 나가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주말이라 부모님 보고 집밥이라도 먹고싶어 집에 오고 싶다고 해도, 내가 주말 근무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 가족 모임에서 빠지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말부부라 두 번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너무 좋았는데 월요일로 바뀌어서 남편의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다라고 하십니다.

-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게 되었는데 일주일 루틴이 바뀐게 있는지?

휴일날 친구들과의 모임, 밀린 집안일 등에서는 변한 건 크게 없지만 예전보다 지치고 힘들다고 느낍니다. 마트 동료를 만나는 건 월요일 가능한데 집안 모임 등 가족 관련 행사는 주말에 하게 되니 계속해서 혼자 빠지게 되어서 가족한테 미안하고 혼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체 여사님들은 대부분 금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데 의무휴업이 월요일이니까 가족과의 여행이나 가족 모임은 꿈도 못 꾸다고 하소연하시는 분

들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의무휴업은 그냥 정일 쉬는 거와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연차 소진하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관련한 노동조합의 투쟁과제는?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으로 의무휴업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공휴일중 이틀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휴일도 없고 저녁도 없는 마트 노동자는 어떻게 가족과의 정을 느끼고 친구와 교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구청 앞, 법원 앞, 점포 앞에서도 투쟁하고 대구 모든 마트 노동자들이 힘써 싸웠지만 월요일로 의무휴업이 변경되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월례토론회 등 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니 참 반가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단체를 만나고 토론하고 해서 노동에도 휴식이 꼭 필요하고 그 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가족과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함께 노동탄압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계속 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